

8000년 전 제주 용암동굴 '불의 숨길' 미리 걷다

10월 세계유산축전 앞뒤 뱅뒤굴·김녕굴·만장굴 등 비공개 구간 언론에 공개 총 21km 길이 세 구간 개발 야간 콘텐츠·유료화 시도

그토록 뜨거웠던 적이 언제였을까. 화산활동으로 용암류가 흘러 내리면서 만들어진 8000년 전의 용암동굴은 그곳에 밟았던 이들에게 문득 그런 불을 던졌다. 동굴 천장과 벽, 바닥엔 용암이 흐르다 먼저 식으며 굳어진 표면을 뒤로 하고 뜨겁게, 뜨겁게 저 바다까지 다다른 불길의 흔적이 살아 있었다.

10월 1~17일 펼쳐지는 '2021 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세계유산축전 사무국이 지난 4일 언론에 그 현장을 미리 선보였다. 주최 측은 제주 동쪽에 있는 뱅뒤굴, 김녕굴, 만장굴 비공개 구간의 문을 차례로 열고 옷산전굴, 북오름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일대를 안내했다. 이들 동굴 내부는 세계자연유산축전 기간을 제외하면 접근이 안 되는 곳이다.

미로형 동굴로 알려진 뱅뒤굴은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탐험 인원이 제한된 탓에 일부에 한해 입장이 이뤄졌다. 안전모를 써도 동굴 천장에 몇 차례 머리를 부딪힐 만큼 좁고 낮은 통로를 통과해야 했고, 헤드랜턴에 의지해 철쭉 같은 어둠을 헤쳐 가야 했다. 내부는 용암이 흘렀던 길이 또렷했다. 밧줄을 꼬아놓은 듯한 바닥의 '무늬'는 자연이 빚은 조각품이었다.

옷산전굴과 북오름굴 사이에 있는 상류동굴군 일대 용암교도 찾았다.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와 이웃한 땅에 약 만년에 달하는 지질적 역사가 숨쉬고 있다.

국내 동굴 최초의 천연기념물인 700m 길이의 김녕굴 초입에는 동굴 생성 시기부터 수천 년 세월 동안 바람 등을 타고 제주바다에서 밀려든 모래가 하얀 눈처럼 쌓여 있었다. 남쪽으로 더 걸어 '용암 폭포'를 타고 넘으면 동굴의 막장에 다다른다. 주굴을 빠져나와 오른편 좁은 길로 가면 다층 구조의 또 다른 김녕굴을 마주하게 된다. 커다란 입을 벌린 동굴



김녕굴 내부. 바닥 원모래, 천장과 벽면에 새겨진 불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상국기자



다층 구조의 또 다른 김녕굴. 커다란 입을 벌린 동굴이 위·아래에 나란히 붙어 있다.

이 위·아래에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들 지점을 포함해 이번 축전은 '조우'를 주제로 거문오름에서 월정리까지 약 21km에 걸쳐 '불의 숨길-만년의 시간을 걷다' 3개 구간을 개발했다. 1~2구간은 사전 신청을 받아 1시간 간격으로 종전보다 여유있게 운영되고 3구간은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다. 만장굴 전 구간 탐사대, 특별탐험대, 유산순례단 등은 별도 선발 과정을 거쳐 꾸린다. 야간 프로그램인 '한라산 이승생' 나이트 워킹을 신설했고, '세계자연유산 탐험버스' 등 유료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6월 초 세계유산축전 홈페이지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참가자 모집이 이뤄진다.

김태욱 세계유산축전총감독은 "2020년도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10월 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모처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뱅뒤굴.



세계유산축전 기간에 공개되는 만장굴 비공개 구간 일부.

보완해 희소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구축하려 했다"면서 "앞으로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지역민 주도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계유산축전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비공개 구간을 탐방하는 '특별

한' 기회 제공을 넘어 후대에 전할 제주 섬의 가치를 확산,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세계자연유산 용암동굴계가 TV 예능 프로그램 속 원시적 배경으로만 소비되던 동굴 밖의 제주 개발 이슈가 첨예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불의 숨길'을 걸으며 우린 다시 뜨거워질 필요가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현대무용의 몸짓과 추억의 명곡

제주아트센터 기획 공연 '아름다운 가사 콘서트'와 '현대무용축제' 제주 찾아

제주아트센터가 춤과 노래가 있는 공연으로 5월 무대를 꾸민다. '아름다운 가사 콘서트'와 '국제현대무용축제' 제주 공연이 준비됐다. '모다페' (MODAFE,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로 약칭되는 국제현대무용축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장수 무용축제다. 올해는 40주년을 맞아 '모다페 인 제주'란 이름으로 제주로 향한다.

이달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블루댄스씨어터, LDP무용단, 밀물현대무용단, 뿔마루무용단 등 유명 현대무용단의 대표작이 나온다. 국제현대무용축제 총감독

인 한양대 이해준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무용수와 단체가 출연하는 무용축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이 춤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입장권은 R석 2만원, S석 1만 5000원, A석 1만원이다. 예매는 1인 2매까지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이달 12일 오후 7시30분에는 '아름다운 가사 콘서트'가 펼쳐진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공연이다.

이 공연은 과거의 명곡들을 이 시대의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뉴트로 콘서트다. '가슴으로 듣는 사랑'으로 보는 '추억'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출연진은 가수 홍경민, 뮤지컬 디바로 변신한 유지, '불후의 명곡'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이봉근, 크로스오버 밴드 '두번째달'로 짜여졌다. 문의 728-1509. 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강문정 수채화 개인전

제주한라대 간호학과에 약 40년 동안 재직했던 강문정 전 교수가 첫 수채화 개인전을 열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강문정 전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7-8년 동안 그림 공부를 하며 얻은 결실로 채워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8월 퇴임에 맞춰 제자와 동료,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전시로 준비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전시장 일정으로 이번 봄에 개인전을 갖게 됐다.

전시장에는 제주시 도심에 핀 벚꽃과 비오는 날, 오름, 인물 등을 담은 30여 점의 수채화 특유의 '물맛'을 살린 시내 거리 풍경에 선 이국적 정취가 느껴진다.

민속박물관 '전시 속 전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 속 전시'를 활발하게 이어 가고 있다. 기존 '갤러리 뱅다잇'이 네 번째 초청전으로 규방공예 작품전을 마련했고, 민속전시실 일부 코너에선 '바람이여라' 테마전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 뱅다잇 초청전은 이달 4일

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바다를 닮은 쪽빛 전통 문양염 작품, 전통매듭과 자수, 조각보, 한복 등 30여 점을 전시했다.

상설전시실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민속전시실 테마전은 5월부터 제주 '삼다'의 하나인 바람을 보여주는 소장 유물을 내놓았다. 가정의 달 관람객에겐 바람개비 만들기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민속전시실 테마전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엔 '제주인, 역병을 이겨내다' 주제전을 열었다.

'그림책 30년사' 주제 전시

매월 테마가 있는 도서전을 열고 있는 제주도 한라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즐기며, 시대별 공감 기회를 제공하는 '그림책 30년사' 주제 전시를 기획했다.

지난 3일 시작돼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그림책 380여 권을 선별해 30년간의 연대표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 전시 도서는 '그림책에 담긴 세상'에 수록된 책들로 1980년 이후 한국 현대사를 통찰·성찰하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원나무 매달기 체험'도 마련됐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